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혜월 스님 (2)

경허 스님, 어떤 것이 혜명인가?

혜월 스님, 일천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무심삼매(無心三昧)에서 정신을 삼아 놓고 신념을 치는 망치 소리에 '이 한 물건(一物이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환하게 해소된 혜명(慧明: 혜월의 법명) 스님은, 그 길로 경허 선사(1875-1948)를 찾아갔다. 경허 스님은 한눈에 뭔가 간파하고 물음을 던졌다. "그대 참선은 무엇 하러 하는가?" "무엇은 고기가 튀고 있습니까?" "그대, 자네, 지금 어디 있는가?" "산꼭대기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목전(目前)에 고명(孤明: 뚜렷이 밝은)한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이에 혜월 스님은 풍족에서 서쪽으로 가셨다. "어떤 것이 혜명(慧明)인가?" "저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천성인(一千聖人)도 알지 못합니다."

**한 물건, 이렇고 화두의 참구 대상**

역대조사들 이치로 알려는 것 경계

혜월 스님은 언어·생각 떠나 대답

경허 선사께서는 여기에서, "옳고 옳다" 하시며, 혜명을 인가했다.

'한 물건'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의 본래면목(本來面目)으로서, '이렇고?' 화두의 참구 대상이다. 육조 대사가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위로는 하늘을 받치고 아래로 땅을 괴었으며, 밝기는 일월 같고 검기는 칠동(漆桶)과 같아서 항상 나의 동정(動靜)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하고 제시한 공안이다.

이 한 물건은 그 어떤 언어로도 규정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어서 부처님과 조사도 입을 뿔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달마 대사는 '불식(佛識: 모른다)'이라고 말했다고 하며, 육조 스님의 인가를 받은 혜향 스님은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設使一物也不中)"고 했으며, 송산 스님은 "오직 모름 뿐"이라고 고도 했다. 마찬가지로 혜명 스님은 '혜명의 본래면목'을 묻는 질문에,

역대 성인도 이치로는 알 수 없다고 답한 것이다.

황벽 스님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지혜로서 알 수도 없으며,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경제인 사물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힘써 노력한다고 다다를 수도 없는 이것"을 "모든 불·보살과 일체 품물거리는 미물까지도 똑같이 지닌 대열반의 성품(大涅槃性)", 또는 '신령스런 깨달음의 성품(靈覺性)'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렇듯이 이 '각성(覺性)'을 깨닫는 참선은 물고기가 물을 찾고, 광화문에서 서울 찾는 것처럼 자명한 정상(平常)의 일이다. 또 각성은 주객(主客)과 자타(自他)가 사라진 경지여서 찾으면 찾을 수 없지만, 찾지 않으면 없는 곳

이 없어서 산꼭대기의 바람이 지나가는 가운데 있다. 이 '한 물건'은 무엇이라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혜명 스님은 '한 물건' 자체가 되어 언어와 생각을 떠나 경허 스님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경허 스님은 전법의 표시로 비로소 혜명에게 '혜월(慧月)'이란 법호와 전법계승을 지어주었다. "일체법 사무쳐 알면 자성에 또한 소유가 없는 것" 이와 같이 법성을 깨쳐 알면 노사나부처님 곧 보리야/ 세상의 생멸법 뛰어 생사 초월한 도리 부르짖으니/ 청산 다리 한 빗장으로써 서로 우물쭈물 하도다."

경허 스님은 혜월 스님에게 "남방이 인연 있는 땅이니, 이 길로 남쪽으로 가도록 하라" 했다. 혜월 스님은 하직하고 곧 양산 미타암으로 가게 된다.

김성우 객원기자

# 나는 삼라만상의 주인 누가 속박하는가?

'혜안카페' 오프라인 수행 이각 스님의 '원각경' 강의

"정당한 원각의 깨달음에서 흘러나온 모든 법은 일체가 환(幻)인 줄 알고 수행해야 합니다. 환인 줄 알면 곧 여인(離) 방편을 짓지 아니하고,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라 점차도 없습니다(離幻即覺 亦無漸次)." 4월 7일 저녁 8시, 원주 치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도심포교당 도각사주지 향수, 아담한 법당에 스님 10여명을 비롯한 20여대중이 이각(理覺) 스님의 <원각경> 법문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다.

**▲뚜렷이 깨진 묘한 마음**

원주 근교의 강원도 불자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카페인 '혜안(cafe.naver.com/rafuira.cafe)'의 회원들이다. 오프라인에서 수행이 이어지기 힘든 온라인 수행도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절반이나 경전강의에 동참한 것부터 예상치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법문의 수준 역시 상당한 안목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높다. 더구나 최승승 돈교(頓教)인 <원각경> 법문이다 보니, 법회가 이뤄지는 이 자리가 그대로 원각도량으로 느껴질 정도로 신심이 난다.

"중생의 무명은 본디 스스로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무명과 윤회는 실로 있지 않은 '나고 죽음(生死)'을 실로 있는 것으로 보는 중생의 전도된 망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원각경>은 이러한 온갖 중생의 갖가지 허깨비의 변화가 모두 여래의 '뚜

렷이 깨진 묘한 마음(圓覺妙心)'에서 나온다고 보기에, '일체 중생이 이미 뚜렷한 깨달음을 증득해 쓰고 있다(一切衆生 皆證圓覺)'고 설합니다."

이각 스님의 법문에 따르면 최승승 돈교는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는다는 기존의 수행관이 아닌, '뒤를 없는 참된 뒤를(無修之修)'이다. 그것은 중생의 생사와 무명이 실로 있지 않음을 바로 비취내듯, 생사 없음에 머물지 않고 생사를 해탈의 묘용으로 바로 드러내는 수행이다.

즉 그것은 온통 깨달음인 수행이고, 그 깨달음은 온통 뒤속으로 드러나는 깨달음이다. 왜냐하면 <원각경>은 자신이 '원각'으로서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함을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방편과 차제의 이름을 세우되 실로 방편을 짓지 않고 차제가 없기(不作方便 亦無漸次) 때문이다.

근기가 둔한 사람은 환(幻)과 같은 방편으로써 환을 뒤는 '허깨비 같은 삼매(如幻三昧)'로 끊임없이 환을 여의어 원각에 들 수 있지만, 이러한 근기는 진실로 환을 여의고 다시 허망한 알음알이를 내지 않아서 원각이 저절로 스스로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온갖 생각 드러내는 근원적 능력**

'현선수보살장(賢善普菩薩章)'을 끝으로 <원각경> 법회를 회향하는 이각 스님은 1년 동안 설해는 법문을 총정리 하듯이 자상하게 되풀이 한다.



온·오프라인 불자들을 사로잡는 이각 스님(오른쪽)의 <원각경> 강의모습.

"6근과 6진이 환상과 같아서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체는 없는 것들이니 당연히 그 둘에 의하여 드러나는 생각도 그 실체가 없어서 보이지도 만져지지 않는 것임"이다. 그러나 '생각'이 없다면 6근이나 6진은 '없다는 것도 없는 것'이 되어 버리니 생각의 근본인 '깨달음(覺)'에 본래 갖추어진 세 가지(세상, 몸, 생각)가 어울려 드러나는 것이 현실 즉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연한 비밀이 이 세기인 것이고 실상이며 현실이고 인생인 것이니, 비유하면 이 세상은 '꿈의 세상'이며 '환상의 세상'이며 '깨달음의 세상'이니 '오직 정신세계(三界唯心)'인 것입니다."

이각 스님에 따르면, '깨달음(覺=佛)은 온갖 생각을 드러내는 근원적 능력'이다. 또한 '생각'이란 객관세계와 불가분의 관계인 감각기관의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정신 활동이다. 눈은 세상의 색깔이 모두 사라지면 무용지물이 되고, 색 또한 눈이 사라지면 그 실체가 증명될 수 없는 빛의 현상이지만, 이 둘이 화합되면 '보인다'라는 '작은 깨달음'이 이루어지며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전개하게 된다는 것이다.

"6근, 6진, 6식이 셋은 모두 허상입니다. 이 셋은 셋이 아니고 하나인 '깨달음'이고 '지금'이며 '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삼라만상이고 삼라만상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라함을 깨닫는다면 이제 삼라만상에 의해 속박 받을 '나'가 아니고 삼라만상을 끌어안고 있는 왕이므로 극치의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해탈의 경지입니다."

**▲ '지금 여기'의 깨달음 확인**

저녁 8시부터 무려 4시간 동안, 휴식시간도 없이 펼쳐진 이각 스님의 열정적인 설법은 철저한 경전에 근거한 것으로, 뼈를 깎는 자내증(自內證: 스스로의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음)에서 나온 것으로 느껴졌다. 법회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지금 여기'의 깨달음을 확인토록 하는 힘과 진실을 담은 감동적인 '꽃자리'였다.

회각(53·원주) 보살은 "큰스님의 법문을 통해 자타(自他)와 생사가 본래 없음을 밝혀 자유의 불사조(不死鳥)가 되고, 스스로 만든 환상과 꿈인 이 세상의 실체를 명확히 깨달아 참나의 위대함을 이생에서 기필코 성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혜안 카페는 최근 이각 스님의 법문을 모아 <불발>(지혜의는 깨어)란 책을 펴냈다. 이 카페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월야 참회정진법회를 열고 있다. 월야법회를 회향한 '지심(至心)'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원각경> 법회도 열 계획이다. (033)734-1422

원주 도각사=김성우 객원기자

**수행**

**근일 스님 법문 및 철야정진**  
영주 부석사는 4월 28일(토) 저녁 9시부터 근일 조실스님 법문에 이은 참선 철야정진법회를 연다. (054)633-3464

**단기 출가학교**

경향 일정사는 5월 6일~6일 4일(30일 7) 제12기 단기출가학교를 연다. 일반

남녀 각각 30명(60명)이 삭발염의(削髮染衣)하고 출가생활을 체험한다. (033)332-6664-5

**대호 스님 참선법회**

제주 원명선원장 대호 스님은 4월 24일(화) 오후 7시 서울 논현동 불이선원(02-543-2007, 대주 2·4층 2호)에서 참선법회를 연다. 원명선원(064-

755-3322) 참선법회는 매주 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자애명상과 마음챙김명상**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5월 3일(목) 오후 2시부터 6일 오전 11시(3박 4일)까지 과산 다보수련원에서 자애명상과 마음챙김명상 집중수행을 갖는다. (043)833-7789

**아빠다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받은길 아바타 센터**  
이벤텍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본래는 언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평생부자 지갑**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오마니반메홍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폐지해는 12년마다 오지 만 정해년 폐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폐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폐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폐지해라 한다. **황금폐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움들이 신통토록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오마니반메홍 복지갑이 황금폐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 안 남성용 송나노 증지갑  
여성용 옐로나노 증지갑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폐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보존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인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폐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오마니반메홍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생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증지갑 95,000원 남성용증지갑 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몸에서나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것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대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이 아메는 자수정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 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면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 불멸의 보석이라고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는 인도에서 염주알을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것으로 색상도 일 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컫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것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오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사용할 예불법구로 불리는 불로 스님들까지도 신청하고 있다. 신광사에서는 불사기금 조성으로 구입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소원성취와 사업번창을 위한 365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다쳐울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협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어려움을 당할수 있으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다쳐울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환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기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도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잡귀를 물리치고 다쳐울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본  
아도 모르는 험한세상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금도금하여 가 방보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자동차 금강저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다쳐울화를 미리쫓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삼고금강저를 운전석위에 염주를 꿰고 걸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자동차용금강저 38,000원  
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금강저**  
사고 예방과 화를 쫓는 영험!!